

임신 17주된 만성신장질환 3기 환자에게 병발된 급성신우신염에 의한 급성신기능 악화 1예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수윤 · 권오경 · 장동석 · 이한규 · 이영모 · 나기량 · 이강욱 · 신영태

가임기 여성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의 임신율은 0.5-0.9% 로 낮게 보고 되었으며 이는 우울증, 영양결핍, 성호르몬의 조절 이상, 생리불순, 요독증 등에 의한 수정란 착상장애, 태아 발육부진 등에 기인한다. 저자들은 방광요관역류에 의한 만성신장질환 3기 환자의 임신 17주에 발생한 급성신우신염후 신기능의 급성악화소견을 보인 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

증례 : 27세의 임신 17주 산모로 내원 3일 전부터 발생한 오한, 발열, 좌측복통, 배뇨통, 잔뇨감, 오심, 구토를 주소로 타병원 방문하여서 좌신의 수신증, 신우신염, 만성신부전증 진단 하에 경피적 신루설치술후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과거력상 16년 전 우측신결핵 및 결핵성방광염 진단 하에 항결핵제를 복용하였으며, 5년 전 첫아이 출산시에 우신의 위축성 변화와 좌신의 수신증이 발견되었다. 당시 혈중요소질소 35 mg/dL, 크레아티닌 2.2 mg/dL 로 증가 되어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 받았고 이후 수신증과 위축성변화의 악화로 2000년 5월에 우신절제술 및 좌측요관방광문합술을 시행 받았다. 전원 당시 생체징후는 안정적이었으며 이학적 소견상 경한 복부의 팽만만 관찰되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실 소견상 백혈구 13900/uL, 혈색소 8.6 g/dL, 혈소판 246 K/uL, 혈중요소질소 90.7 mg/dL, 크레아티닌 5.7 mg/dL, 요단백 2+, 요현미경상 16-20개의 적혈구와 다수의 백혈구가 있었고 육안적으로도 농뇨가 관찰되었다. 2병일 째 혈중요소질소 87.7 mg/dL, 크레아티닌 5.7 mg/dL, 중탄산이온 15 mmol/L, 심한 오심 등의 요독증상으로 2회의 응급혈액투석 치료를 시행 받은 후 검사실 소견과 임상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항생제 및 경피적 신루의 유지와 비타민B복합제, erythropoietin, 염산, 철분 등의 보조요법으로 임상증상이 호전되었고 신초음파상 중증도의 수신증이 경도로 감소되었다. 요배양 검사상 동정된 원인균은 없었으며 19병일 째 혈중요소질소 23.8 mg/dL, 크레아티닌 1.8 mg/dL 로 감소되었고 20병일 째 경피적 신루를 유지한 채 퇴원하여 현재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결론 : 기존의 만성신장질환 환자에게 성공적인 임신과 유지 및 분만에 대한 보고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저자들은 방광요관역류에 의한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임신 17주에 발생한 급성신우신염에 의한 급성신기능 악화를 이전 신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임신을 계속 유지하도록 성공적으로 치료하여서 보고한다.